

포르투갈·프랑스 톱시드 탈락... 어느 팀 만나도 ‘죽음의 조’

월드컵 톱시드 확정...12월 7일 브라질서 조추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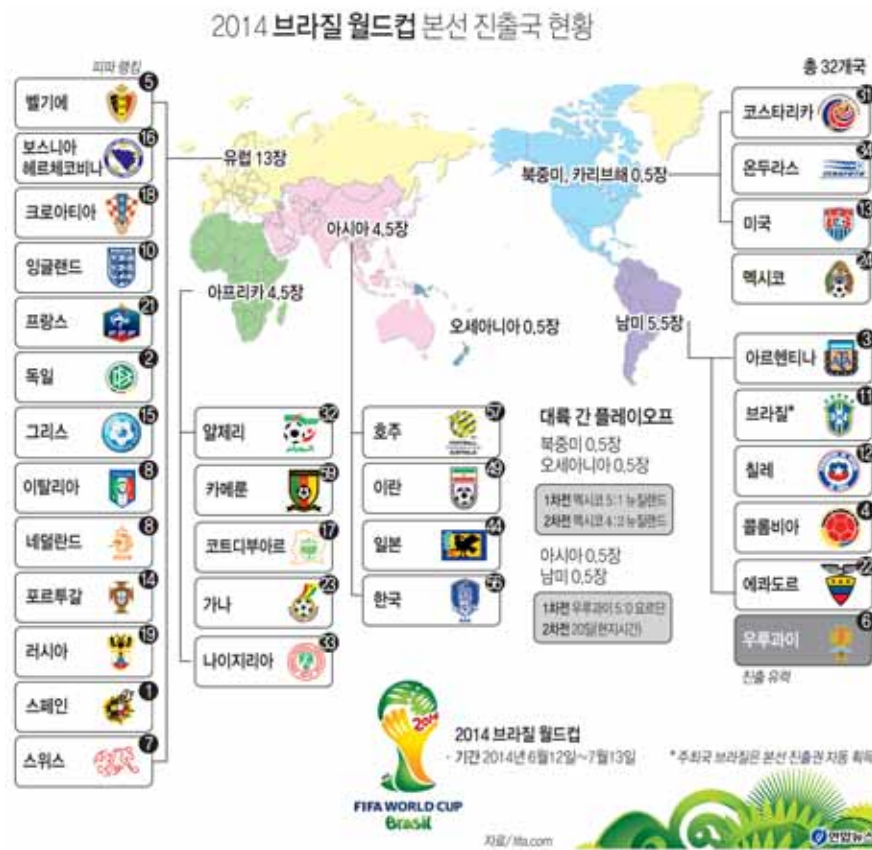
FIFA 랭킹 58위 한국, 16강 ‘가시밭길’

브라질·이탈리아·코트디부아르 만나면 최악

스위스·그리스·알제리 한조편 최상 시나리오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나설 32개국의 운곽이 거의 드러나면서 12월 7일(한국 시간) 치러지는 월드컵 본선 조(組) 추첨 결과에 팬들의 관심이 벌써 뜨거워지고 있다. 20일 일제히 치러진 브라질 월드컵 유럽예선 플레이오프 2차전과 아프리카 최종예선, 대륙별 플레이오프 결과 총 32개 본선 진출국 가운데 31개국이 확정됐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1개국은 21일 오전 8시(한국 시간) 치러지는 요르단과 우루과이의 대륙간 플레이오프 2차전 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다.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둔 우루과이(남미)가 사실상 유력하다. 한국 축구가 이번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내세운 목표는 2회 연속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다.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홍명보 호(號)는 지난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의 쾌거를 달성한 허정무 호(號)의 뒤를 이어 2회 연속 월드컵 16강 진출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원정 8강 진출의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홍명보호의 꿈이 이뤄지려면 선수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우선이지만 조추첨 결과도 성적의 큰 변수를 차지한다.

한국의 10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56위로 이미 본선행을 확정할 31개국은 물론 통과를 앞둔 우루과이 합쳐 32개국 가운데 아프리카의 카메룬(59위)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한다.

FIFA 랭킹만 따진다면 한국은 어떤 팀과 만나더라도 손쉽게 승리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본선에서 그나마 덜 어려운 상대를 만나는 게 16강 진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FIFA는 12월 7일 새벽 브라질의 휴양지인 코스타도 사우이페에서 조 추첨식을 연다. 조 추첨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그룹(개최국 및 시드국) ▲2그룹(아시아·북중미·오세아니아) ▲3그룹(남미·아프리카) ▲4그룹(시드를 받지 못한 유럽)으로 나뉘어 4개팀씩 8개조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FIFA는 지난달 집행위원회에서 톱시드 선정 기준만 발표했다. 개최국 브라질

과 함께 FIFA 랭킹 1~7위 팀인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벨기에, 우루과이(유력), 스위스가 1그룹으로 배정됐다. 만약 우루과이가 대륙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면 랭킹 8위인 네덜란드가 포함된다.

한국의 랭킹이 최하위권인 만큼 사실상 어느 팀을 만나도 ‘죽음의 조’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최국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와 함께 묶이면서 톱시드를 받지 못한 유럽의 강호인 포르투갈(14위), 크로아티아(18위), 프랑스(21위) 등과 아프리카의 코트 디부아르가 함께 들어온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더불어 유럽 2개국이 포함되는 것도 유럽 축구에 먼영력이 적은 홍명보 호로서는 피하고 싶은 대진이다.

그나마 1그룹에서 랭킹이 밀리는 스위스가 포함되고 3그룹에서 세네갈이나 알제리, 4그룹에서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승리한 바 있는 그리스 등이 포함되면 ‘최상의 대진’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두번째 이적 전쟁

프로야구, 내일 2차 드래프트

주축 선수 농친 구단들 전력보강 기회

40인 보호선수 제외 3명까지 지명

FA(자유계약) 이동으로 뜨거웠던 스토브리그에 또 다른 이적 바람이 분다.

22일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가 열린다. 40인 보호선수 외에서 각 팀 별로 최대 3명, 신생팀 KT는 최대 8명을 영입할 수 있는 스토브리그의 대이동이다. 보상금은 1라운드 3억원, 2라운드 2억원, 3라운드 1억원.

격년제로 진행되는 2차 드래프트는 2군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신생구단의 선수 부족 해결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11년 이후 두 번째다.

KIA에게는 전력의 빈틈을 채우는 기회이자 선수단 운영 전략을 재평가 받는 자리다.

KIA는 이번 FA시장에서 울상을 지은 팀으로 평가 받는다. 투타의 핵 윤석민·이응규가 이탈했고 이대형으로 외야의 급한 불을 껐지만 보상선수로 20인 보호선수 외에서 한 명을 내줘야 한다. 여기에 선발·불펜·마무리 모두 고인이고 내·외야의 주전과 백업의 격차가 크다.

2차 드래프트 시장은 의외의 수확을 노릴 수 있는 자리다. NC는 이 재확을 신인왕으로 키우며 2차 드래프트 성공 사례를 남겼다. 삼성의 신용운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극적인 재기를 이룬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이번 시장에는 ‘2군 유망주의 기회’라는 취지와는 달리 당장 라인업에 배치할 수 있는 베테랑이 많이 나왔다는 평가다. 전면적인 리빌딩을 진행하면서 팀을 대표하는 투·타의 베테랑 등 상징적인 선수들을 대거 시장에 내어놓은 팀도 있다는 후문이다. 군입대와 팀워크 문제 등으로 전력에서 배제됐던 즉시 전력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구단들은 부지런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당장 내년 시즌을 보느냐와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 KIA의 선택은 달라지게 된다.

KIA는 앞선 드래프트에서 3명의 선수를 영입했고, 5명의 선수를 내어주었다. KIA가 영입한 선수는 이두환, 김경록, 백세웅 등 3명. 차세대 거포로 두산에서 지명한 이두환은 대외골두육종으로 야구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삼성에서 이적한 외야수 김경록은 공격에 비해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 속에 아직 1군 무대를 밟지 못했고, 롯데에서 낙점한 내야수 백세웅은 군복무 중이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광주를 떠난 이는 신용운, 박근홍, 우병걸(이상 투수·삼성), 정성철(투수·NC·방출), 윤정우(외야수·LG) 등 5명.

세 명의 선수를 모두 KIA 투수로 채웠던 삼성은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큰 재미를 봤다. 최고의 재할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용운을 마운드로 돌려놓으며 3연패에 힘을 보태게 했고 좌완 박근홍도 아시아 시리즈에서 좋은 피칭으로 눈길을 끌었다.

군복무 중인 윤정우도 놀라운 스피드를 보유한 젊은 피였던 만큼 KIA에게는 손실이 더 컸던 2차 드래프트였다. 이번에는 ‘손실은 최소화 약점 보강은 최대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2차 드래프트가 끝난 뒤에는 FA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 야구위원회(KBO)가 21일 FA 계약 승인을 공시하면 24일까지 FA를 영입한 구단은 20인 보호 선수 명단을 FA선수 전소속구단에 넘긴다. 보상선수 선택은 27일까지 이뤄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가 양보할 것 같아?”

한국 축구 대표팀 김보경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자빌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러시아의 평가전 경기에서 세르게이 이그나세비치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대표팀은 전반 6분만에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의 선제골이 터졌지만 내리 두 골을 내주며 1-2로 역전패했다. 지난 7월 동아시아인을 통해 출항한 홍명보 호는 올해 10차례 A매치를 3승3무4패의 성적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컬링대표팀 김지선·김은지·신미성·이슬비·염민지(왼쪽부터).

여자 ‘컬링’ 아시아 ‘컬링’

아시아·태평양대회 3년만의 금...중국에 9-8 역전

내년 러시아 소치에서 사상 첫 동계올림픽 무대를 밟는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아시아·태평양대회에서 3년 만에 금메달을 수확했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인 경기도청팀은 지난 19일 컬링 상하에서 막을 내린 2013 아시아·태평양 컬링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중국에 9-8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섰다.

대표팀은 6-7로 추격하던 9엔드에 1점을 추가로 허용해 베팅 끝에 물렸다. 그러나 마지막 10엔드에서 단숨에 3점을 확득하면서 숨가쁘던 경기를 ‘뒤집기’로 마무리했다.

한국 여자 컬링이 이 대회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2001년 전주 대회와 2010년의 성 대회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홈그라운드인 평창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아시아·태평양 선수권대회는 2014년 세계 선수권대회 출전권 2장이 걸려 있는 지역 예선의 성격을 띤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최강 전력임을 확인한 셈이다.

대표팀은 최근 소치 올림픽을 향해 치르는 ‘전초전’ 성격의 대회에서 연일 승전보를 울리며 자신감을 키워 가고 있다. 대표팀은 지난 9월에도 세계랭킹 상위 7개국에서 팀을 초청해 열린 중국오픈에서 ‘중주국’ 캐나다를 격파하고 우승한 바 있다.

여자 대표팀은 다음달 이탈리아 트랜티노에서 열리는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해 실전 경험을 더 쌓은 뒤 캐나다 전지훈련을 거쳐 소치로 향할 예정이다.

한편 남자 대표팀은 같은날 열린 3-4위전에서 뉴질랜드를 7-6으로 따돌리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임선영 K리그 챌린지 주간 MVP

광주 FC의 공격수 임선영이 K리그 챌린지 주간 MVP에 등극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20일 K리그 챌린지 33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올 시즌 광주 공격의 참병으로 급부상한 임선영이 MVP에 이름을 올렸고, 든든하게 허리를 지키고 있는 김은선도 베스트 11에 올랐다.

임선영은 지난 상주와의 경기에서 전반 10분 김은선의 골을 도운데 이어 전반 39분에는 박현과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시즌 4호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2-1 승리를 견인했다.

선정위원회는 “허를 찌르는 매우 침투와 절묘한 침투패스로 팀 승리를 견인했



다”고 임선영의 플레이를 호평했다.

선취골의 주인공 김은선도 “미드필드진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와 함께 베스트 11이

됐다. 김은선은 전반 10분 만에 수비수 세 명을 따돌리고 슈팅을 날리며 선취골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